현장 숙련공들은 이미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 경험 및 기능 전수 단절 위기, 기능인력 문제의 궁극적 피해는 국민의 몫 -

금년 초, 학교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타일을 붙이러 온 타일공들이 이미 설치된작업등외에별도의작업등을설치하고 있었다. 의아스러워서그 이유를 물었더니, 나이들면서눈이어두워져서타일의수직과수평을맞추기위해설치하는작업줄이잘보이지않기때문이라고했다. 50대중반 타일공들의 눈에는현장에서 일반적으로사용되고있는촉광의작업등으로는세밀한작업이어렵다. 그래서그들은높은촉광의전등을 별도로 준비해서 작업 공구와 같이 늘 가지고다닌다는것이었다.

얼마전전문건설업체를운영하는지인과의 통화에서 요즘 벽돌 쌓는 조적공 구하기가힘들다는말을들었다. 그리고며칠전집필 중인 교제와 관련된 자료 구입차 방문했던한아파트현장에서는, 수년전에회갑을 넘긴 안면 있는 미장공이 단열재를 바르고 있었다. 바람한점통하지않는화장실안에서는 허리가 굽은 한 아주머니가 방수 공사를 위한 바탕면 청소를 하느라고 땀을 흘리고있었다.

급속한 고령화

이렇듯 건설 현장에는 생산 구조의 최하부 단계인 기능 인력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재외동포특별법』에 의해 입국한 중국 동포들이나타산업에서일자리를찾아든비교적 젊은사람들의유입이이루어지고있기는하다. 그러나이들대부분은건설현장에서장기적으로 일을 하거나 현장 일을 직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며, 하는일도숙련도를요하는직종보다는단순하고 근육의 힘을 필요로 하는 업무 분야에서일하고있는것이대부분이다. 오랜경험과 반복되는 숙습에 의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는 50대 중반 이하의 숙련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건설 현장 상황인것이다.

재해 노출 빈도 높아져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여전히건물은올라가고도로도건설되고 있는데, 여기서 부족하다고 표현한 것은 숙련도가높은기능인력을의미하는것이다.

현장 관리적 측면에서 바라다본 기능 인력 고령화와 젊은 층의 진입 기피는 다음과 같은현상을유발시키고있다. 건설현장작업의 대부분이 기능과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경험과 근력을 모두 필요로 하는데, 고령의 기능공들로서는 경험은 살릴 수 있어도 원가에서 요구하는 성과물을 만들어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몸과마음이허약해진상태에서 요구되는생산성을무리하게충족시키려하다보면자칫재해에노출되기쉽고, 완성품의품질저하에따른불량률이높아질수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저가낙찰제도의 적용은 직접 비용인 노무비용을 낮추거나 작업시간의연장및작업강도를높이는등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여원가를보전하려는행태가관습처럼굳어져내려오고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자료를 보면 공기 단축, 생산성 향상 등 무리한 공사 수행시, 그리고 노약자나 신규자가 재해에 노출되는빈도가높은것을알수있다. 이는 넉넉하지못한수주단가에서일정한수익을 창출하기위해서는안전보다는높은생산성을 고려한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품질 저하… 하자 발생

현장의생산성과완성품의품질은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발생된 하자 부위를 살펴보면역시시공순서및방법을제대로적용하지 않은 시공 과정의 조잡성이 발견되는 경우가많다. 그런데일정수준이상의기능과 경험을 갖춘 나이 든 숙련공이 작업한 곳에서도종종하자가발생한다. 이럴경우기능 및 경험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 영향을 끼쳤을것으로짐작할수있다.

일례로 어느 건설 현장에서 50대 후반의 기능공이작업발판에서실족하여부상을당한적이있었는데, 그기능공은작업중술을 마시고 술의 힘을 빌려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품질 수준과 작업량을 자신의 힘으로는 소화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장에서는 음주 작업을 금하고 있으며 현장 식당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오후 작업을하던중에사고가발생한것이다. 현장 관리를하다보면이처럼나이든기능공들이 술의힘을빌리려드는것을자주볼수있는

데결코가볍게넘길일이아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 잠식

합법적이든 불법으로든 건설 현장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도간단치않다. 작금과같이건설산업불경기 여파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부 공종에서는외국인근로자, 특히중국동포들이스스로 세를 확장하여 내국인 기능 인력들의 일자리를잠식하고 있다. 또한타 산업에서 건설 현장의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들까지 기존기능인력들의설자리를없게만들고 있는데, 그주된원인은직접수요자인하도급업체(주로 전문건설업체)에서 이들을 선호하기때문이다.

그이유인즉, 내국인기능인력의고령화에따라노임의차등화가거의없는데도비교적 젊은 층인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지정공기내에공사를마쳐야하는절박함 때문에 원도급자 측에서도 알게 모르게 눈감아주고있기때문이다.

고령화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냈던 타일공은 촉광 높은 전등을 설치하여 밤을 낮처럼 밝혀가며늦은시간까지작업을하였다. 결국할당받은 작업량을 마칠 수 있었는데, 그는 40년가까이해왔던이일을앞으로얼마나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안경을끼고별도의작업등을 설치해 도점점눈이어두워진다는하소연이었다.

건설현장의구조체생산방식이예전조적조에서콘크리트벽식으로변화함에따라 벽돌쌓는일이많이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기능공들이남아야하는데도오히려조적공이부족한이유는무엇일까?

대부분의건설 현장에서는 최저가낙찰제 도가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발주량 부족으로인한과당경쟁의결과수주단가가턱없이낮아졌는데, 그여파가기능인력들을강타하고 있다. 조적의 예를 들어보자. 조적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일당을 책정해서 기능공들을고용하는것이아니라능력급, 즉벽돌1장을쌓는데대한비용을지불한다. 따라서조적공은하루1,700장이상을쌓아야 하루일당10만원정도의수입을올릴수있다. 보조해주는사람없이하루10시간이상 허리펼시간도없이발판을옮기고그위에 벽돌을 올려서 작업을 한다. 최종적으로는 바닥에떨어진벽돌쌓기용모르타르청소까지혼자마무리를해야한다. 대부분의조적공들은 이러한 과도한 노동 강도를 이기지 못하고현장을떠나다른일을찾거나은퇴를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45년동안한 가지일만하고있다는어느미장공은시공과정을촬영하기위해몇가지포즈를요청했더니짜증섞인표정이역력해졌다. 그역시 폭 45cm, 높이가 230cm인 부재의 단열재 정벌미장을 70개소 했을 때 일당이 들어선다고했다. 과도한작업량때문에옆사람이 말 붙여오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것이다.

나이 든 기능공들이 현장을 떠나거나 어쩔수없이남아있거나중요한것은그들이 아직도 현장에 남아서 근육을 사용하여 하루생산량을담보로한무리한작업을할시기가아니라, 새롭게진입하는청년층을대상으로그동안쌓아온경험과기능을전수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이 사회와 생산현장에서그들에게하루벽돌몇장을 더 쌓아달라는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할 시기가아니라 머릿속에든경험적 지식을사회와 현장에 환원시켜 달라고 요구해야 하

오랜 경험과 숙습에 의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는 50대중반이하의숙련공을찾아보기어려운것이건설현장의실정이다.

는것이옳은일이다.

건설 현장의 기능 인력 고령화 문제는 위에서 열거한 것처럼 생산성이 저하되고, 무리한공사강행에따른재해위험의상존그리고 품질 저하에 따른 하자 비용이 발생하는 등 생산단계에서는생산 원가의 상승을, 그리고성과물을사용하는단계에서는유지보수 비용의 상승 등 전 국민적이고국가적인손실을초래하고있는것이다.

현장에는 왜 젊은 사람이 없는가

2년 전, 지방 공업계 고등학교 1학년생이 인터넷상으로 한 질문을 해왔다. 담임선생님이 조적 연습생을 하라고 권하는데 벽돌 쌓는 것배워서 지방기능대회와전국기능대회에서입상을하면자기앞길이평탄대로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다. 참으로답하기어려운질문을해온것이다. 이에대해공업계 고등학교 건축과 선생님, 전문건설업 체경영자, 현업에서일하고있는조적공, 건축관련기능장등 20여명을대상으로답을 구했는데, 그 중 80% 이상의 답변이 "그것 배우지말고다른공부열심히하라"는것이었다.

그리고 올해 초, 지방기능대회에서 만난 학부모들에게왜자식을건설현장에보내지 않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을 수가 있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고, 건설 현장 기능공으로 일한다고 하면 시집 올 여자도 없다"는 것이었다. 가장 현실적인 말을 하는데 뭐라고 반대 의견을제시할수가없었다.

사람은누구나살아가는동안정신적 · 육체적활동을하고있으며, 이는어떤형태로든먹고사는문제, 즉직업과관련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또한자아를실현해나간다.

그런데 건설 현장 기능공들은 위에서 제시한세가지사항중어느하나도제대로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 자신의직업적활동을통해서얻는소득, 즉일의 대가로가족의생계를꾸려나가므로직업을 생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 일용직인 현장건설기능공들은고용이불안하고소득이일정치않아가족의생계를이끌어갈최소한의 경제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직업을 통한 사회적 참여에 따른 보람과자아실현이라는 성취감은커녕건설현장의 일자리는 이것저것 하다가 할 것 없으면누구나찾아가서할수있다는최하부계층의직업군으로분류한사회적편견이공고하게자리잡고있다.

국민 모두가 건설 기능공으로 일하기를 싫어하고, 내가족과친지가그일을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면 '집은 누가 지을 것인가'라는고민이시작되어야할것이다. 사회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는데도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중국 동포나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이 싼 값으로 우리들의 집을 지어주고만 있을 것인가? 심도 있게 고민해볼 문제이다.

건설 현장 기능 인력 고령화와 젊은 층의 진입기피현상은, 좋은건물훌륭한시설을 갖고싶으면서도그것을만들어내는사람들을 괄시하고 대우해주지 않는 나쁜 풍조가 이사회에만연되어있기때문이다.

건설 생산 조직의 한 축이면서도 사회적 약자인건설기능공들에게노력하는만큼의 대가를챙겨주지않을뿐더러열악한환경에서의 장시간 근무와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젊은이들의 건설현장진입을기대하는것은무리다. 젊은 층의진입이차단되면서기능인력의고령화는가속페달을밟고있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명래
예창건설기술이사 · 건축시공기능장

도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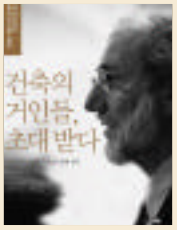
건축을 묻다: 예술, 건축을 의심하고 건축, 예술을 의심하다

서현 지음/효형출판 펴냄/344쪽

이 책은 "건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이를 역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역사를 알기 위해 미술책을 펴고 박물관으로 가라고 말한다. 건축계 인물이나 사건, 건축물 등 많은 것들을 역사라는 텍스트 안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리스 사상가와 로마 시대의 건축 현장은 물론 르네상스 전후의 건축계 주요 인물과 근현대의 인물까지 폭넓게 접근한다. 저자는 최종적으로 "건축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건축의 거인들 초대 받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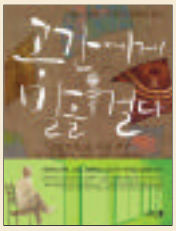
자예 애베이트 등 지음/김현정 옮김/나비장책 펴냄/200쪽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건축가들의 건축 이야기를 담은 책. 「건축의 거인들 초대받다」는 지금까지의 프리츠커상을 받은 30명 중 필립 존슨, 리처드 마이어, 안도 다다오, 렘 쿨하스와 같은 건축의 흐름을 좌우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다양성을 대표하고 시대 정신을 반영한 이들의 사상을 통해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공간에게 말을 걸다

조재현 지음/멘토프레스 펴냄/327쪽



이 책은 '공간'의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한다. 건축의 기본이 되는 공간과 형태의 구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본다. 건축가 조재현은 공간에 대해 알아가면 갈수록 그 근본은 바로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또 공간을 느끼는 것은 사람이었고, 공간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었고, 공간을 만드는 목적도 사람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시대 최고의 공간들에 이르기까지, 공간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